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적용… 일부 소득 제한
보험료는 0.8%씩 적용… 구직·출산전후급여 혜택

그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도 오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 인원은 약 7만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실직 시 다른 임금 근로자처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산 시에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것이다. 예술인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5월20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이들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용부가 추산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인원은 약 7만명이다. 전체 예술인은 17만여명이나 지난 1년간 일정한 예술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이들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이들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막기 위한 것이자,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지만 소득이 매우 낮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감소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 기준은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인 경우 등으로 정했다.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6000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와 관련해서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뉴시스

가슴 한 점 따뜻한 섬진강 물길

임실문학상에 황성신 시인 선정
"9월 출간한 '섬진강 연가' 통해 시에 대한 휘망 품게 되길 바라"

임실문인협회(회장 최기춘)는 2020년 제24회 임실문학상에 황성신 시인(59)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실 운암출신인 황성신씨는 임실군 사회복지 심부름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 '한맥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섬진강가에 살며 시집으로 '우리도 강이 되어'에 이어 올해 9월에는 '섬진강 연가'를 출간했다.

황 시인은 고향 문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품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복지에도 직접 참여로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임실치즈음식문화연구회 이사, 임실경찰발전협의회 위원, 임실꿈나무 감사,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등 다양한 순수 민간단체 활동을 통해 복지 자원을 개척하는 여성이기도 하다.

이번 시집 '섬진강 연가'를 통해 황 시인은 섬진강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궁금증을 유발해 독자에게 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기를 바라면서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모두가 힘들고 답답할 때 가슴에 한 점 따뜻한 물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수상을 통해 한 술 한 술 섬진강물을 퍼 담는 심정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심사평에서는 "황 시인은 2006년 임실문학 회원으로 입회한 이래 다년간 편집위원을 맡아 활동했으며 2편의 시집 발간을 통해 고향을 챙기는 황토시인으로 한층 성숙한 시적 감각과 응축된 표현력을 선보였다. 한편 계속하여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을 통해 임실문학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임실문학상 수상자로 결정하는 데 심사위원 전원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임실문학54호 출판기념회 겸 제24회 임실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상금으로 창작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외롭고, 쓸쓸하고 그립고, 생각나고'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기획전시
감성빈 등 지역 작가 4명 참여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는 '외롭고, 쓸쓸하고, 그립고, 생각나고'를 기획전시 중이다.

이번 전시는 관계 의존도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기회로 삼고자 기획됐고, 주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감정인 외로움, 쓸쓸함 등을 일부러 마주하는 데 있으며, 감성빈, 성애바, 소빈, 주소이 등 남원지역 작가 4명이 참여했다.

최근 인기몰이 중인 감성빈은 슬픔을 대면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작품에서 드러나는 큰 슬픔을 통해 관람자의 작은 슬픔이 위로 받고, 성애바의 영상 작품 '사람의 눈 속에서 떠다니는 아주 작은 부유물'은 각각의 개인들만이 볼 수 있는 시지각적 빛과 이미지를 작가만의 독특한 모션 영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소빈은 닥종이 인형으로 잘 알려진 작가로서 추억과 그리움을 '엄마'와 '소빈'이야기로 풀어낸다.

마지막으로 주소이는 인간 내면 속 고독을 환상적인 배경에 얼굴 없는 인물을 배치해 비현실적인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며, 4명의 작가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회화, 조각,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콜라보를 이뤄 더욱 볼거리가 풍성하다는 후문이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는 '외롭고, 쓸쓸하고, 그립고, 생각나고'를 기획전시 중이다.

전시는 2021년 1월 21일까지이고,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장객 전원에 대해 발열 체크·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나 관람료는 무료이고, 문의는 620-5660로 하면된다.

미술관 관계자는 "인간의 여러 감정들은 만조와 간조처럼 밀려오고 빠지면서 균형을 유지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가 외면한 감정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코로나19, 슬기로운 방역생활'

가천 그림그리기 온라인 공모 성료
대상부터 입선까지 513명 수상

군산시는 올해로 재6회를 맞이하는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약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공모전으로 추진한 이번 대회는 가천길재단(회장 이길여)이 주최하고 가천문화재단·가천대길병원·군산대야초등학교 총동문회가 공동주관했으며 군산시, 군산시의회, 군산교육지원청, 가천대학교가 후원했다.

'코로나19, 슬기로운 방역생활'과 '행복한 우리가족'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라도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다.

약5천여점 응모작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부문별(유초중고)로 그림을 펼쳐놓고, 대학교 미대 교수와 미술 작가 등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의견교환을 통해 대상부터 입선까지 수상작 총 513명을 선정했다.

각 부문별 대상으로는 ▲고등부-문근원(군산영광여고2), 김우솔(대전 동방고1) ▲중등부-이채현(익산 이리남성여중1), 김민서(군산 산북중1) ▲초등부-송유진(군산, 오봉초2), 박혜원(군산동초1), 노지아(군산, 푸른솔초1), 심지은(군산, 진포초5), 이주아(군산초5) ▲유아부-이도윤(군산, 세움아이유치원) 등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총평을 통해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도화지에 그려낸 순수하고 기발한 그림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밝은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가천문화재단이 제공하는 기념품 그리고 수상작들을 엮은 작품집이 함께 제공된다.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전북지역 일대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특별전시회를 갖고 군산시와 교류하는 해외도시에서도 순회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는 군산대야초등학교 선배인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이 지난 2014년에 후배들이 맘껏 책을 보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국내 최대수준의 '가천이길여도서관'을 건립, 기증한 이후, 2015년 개관 1주년을 기념해 군산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다. 이후 매년 학생들과 가족 등 1만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가족축제로 자리잡았고, 온라인 공모전으로 진행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다수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다. /군산=한경봉 기자